부석사 관음상 日반환…“환지본처 기원”

서산 부석사, 5월 10일 봉송법회
100일 간 친견…5만 명 찾아
“관세음보살님 다시 만나요”
日간논지 고불 후 박물관 수장

서산=유재상 충청지사장

왜구에게 약탈돼 일본 쓰시마 섬으로 넘어갔다가 647년 만에 돌아왔던 ‘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이하 부석사 관음상)’이 봉안 원찰 서산 부석사에서 100일 간의 친견법회를 마치고 다시 일본에 반환됐다.

서산 부석사(주지 원우 스님)는 5월 10일 경내 설법전에서 ‘부석사 관음상 봉송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 덕숭총림 수덕사 주지 도신 스님, 총무원 사회부장 진경 스님, 이완섭 서산시장, 조동식 서산시의회의장, 일본 쓰시마 간논지(觀音寺) 주지 다나카 세스료 스님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해 일본으로 돌아가는 부석사 관음상을 봉송했다.


5월 10일 봉행된 봉송법회에서 서산 부석사 사부대중이 일본으로 반환되는 부석사 관음상에 육법공양을 올리고 있다.



어린이 신도가 그린 그림이 불전에 올려져 있다. 그림에는 ‘관세음보살님, 사랑해요, 꼭 다시 만나요’ 라고 적혀 있다.


서산 부석사에서 봉행된 봉송법회에서 참가 사부대중이 진정한 환지본처를 부처님께 서원하는 발원문을 낭독하고 있다.

부석사 주지 원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관음상을 다시 보내야 하는 것에 깊은 안타까움을 표했다. 원우 스님은 “1330년 왜구의 약탈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신분의 높고 낮음 없이 뜻을 모아 영원히 부석사에 봉안하기 위해 제작한 불상이 일본으로 다시 돌아간다. 날씨마저도 슬퍼하듯이 짙은 운무가 눈앞을 가리고 있다”고 안타까워하며 “문화유산은 소유물이 아님을 일본 정부는 알아야 한다. 과거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한일관계가 진전될 수 없다. 관음상이 제자리로 돌아와야 한일 양국 관계에 미래가 있고 발전이 있다”고 힘줘 말했다.

수덕사 주지 도신 스님은 “부석사 관음상은 일본으로 떠나지만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며 “우리의 환수 노력이 끊이지 않으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오늘의 법회가 한일 양국 문화유산 보전과 환수 협력에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도 “법원의 결정에 따라 관음보살님께서 돌아가시지만 언젠가 시기가 도래한다면 다시 모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갈등도 있었지만, 상호 협력하며 발전해 왔다. 우리의 원력만 있다면 상호 화합 속에서 실마리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부장 진경 스님은 만해 한용운 스님의 시 ‘님의 침묵’의 ‘아아, 님은 갔지마는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라는 구절을 낭독하는 것으로 이별의 심정을 대신했다. 진경 스님은 “부석사 관음상을 떠나보내며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사부대중을 보니 마음이 숙연해진다”면서 “오늘 이 자리가 한일관계를 원만하게 풀고 발전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1월 25일부터 서산 부석사에서 열린 관음상 친견법회에는 100일 동안 5만여 명이 방문했다. 또 불자와 시민 2만여 명은 일본 반환이 아닌 부석사 계속 봉안을 촉구하는 성명에 서명하기도 했다.

이상근 문화유산회복재단 이사장은 “문화유산을 제자리로 돌려주는 것은 시대적 조류다. 프랑스는 법을 바꿔 아프리카 약탈 유물을 돌려줬고, 얼마 전 선종한 교황도 그리스 유물을 돌려주면서 ‘전 세계 문화유산의 원상회복을 하는 것이 인류의 양심이고 정의’라고 말하기도 했다”면서 “일본 학계·종교계·시민사회는 이 같은 문제에 답해야 한다. 부석사 관음상 환수는 그저 ‘내 물건을 찾는 일’이 아니라 양국의 역사·문화·종교 교류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일본이 이젠 그에 대한 답을 스스로 구해야 할 때가 됐다”고 촉구했다.

서산 부석사는 앞으로 관음상 약탈과 국내 반입 후 반환 소송을 담은 기록관 건립을 추진한다. 또 일본 각지의 귀무덤, 코무덤 등 우리 선조의 유해가 묻힌 무덤의 흙을 가져와 봉안하고 추모하는 공간도 마련할 계획이다.

일본 쓰시마 간논지(觀音寺) 측은 이날 봉송법회를 마치고 실물 검증을 거쳐 낮 12시부터 불상을 특수운반 차량에 실어 공항으로 이운했다. 5월 11일 일본 후쿠오카공항을 경유해 12일 배편으로 쓰시마섬에 입도해 간논지에 봉안됐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간논지는 5월 12일 법요식을 봉행하고 반환을 알렸다. 주지 다나카 세쓰료 스님은 “한국의 모든 분께 감사하다”며 “한국 서산 부석사와 교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쓰시마 시는 안전과 보존 환경 등을 고려해 부석사 관음상을 쓰시마 박물관에 보관할 방침이며, 박물관은 5월 16일부터 한 달간 불상을 특별 공개한다.

부석사 관음상 반입부터 반환까지

原봉안처는 서산 부석사인데 돌아올 수 없는 관음보살님

2012년 10월 6일 김모 씨 등 5명은 쓰시마 내 무인 경비 신사 및 사찰에 침입해 통일신라 금동여래입상과 고려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이하 부석사 관음상)을 훔쳐내는 데 성공했다. 이들은 X선 투과대가 없는 후쿠오카항을 통해 부산으로 입국했다. 절도범들은 입국 당시 부산세관에는 모조품이라고 설명하고 통과했다. 이후 인터폴의 요청을 받은 한국 경찰이 12월 22일 절도범 일당을 검거하게 된다. 이들은 절도 혐의가 인정돼 2013년 10월 1~4년의 징역을 선고받았다.

이와 동시에 관음상은 원(原)봉안처가 서산 부선사임이 알려지며, 도난과 환수 사이에서 논란을 겪게 된다. 2013년 1월 31일 조계종은 “금동관음보살좌상은 서산 부석사에서 봉안된 것으로, 정부는 이 문화유산이 일본으로 반출된 경위와 쓰시마 관음사서 입수한 이유를 철저히 파악하라”는 취지의 논평을 발표했다.

부석사 관음상, 어떤 불상인가?

부석사 관음상은 결가부좌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키 50.5cm, 얼굴 길이 13.4cm, 몸 두께 17.5cm, 무릎 폭 42.2cm이다. 앞으로 약간 숙인 둥그스름한 얼굴에, 입가에는 옅은 미소를 보이고 있다.

부석사 관음상의 가치를 높이는 것은 복장 발원문이다. 1951년 쓰시마 관음사 주지 안도가 발견한 ‘결원문’이라는 제목의 발원문에는 “천력(天歷) 3년 2월(1330년) 서산 부석사에 관음상을 당주(堂主)로서 봉안하다”고 기록돼 있다.

여기에 시주자 32명이 기록돼 있는데 이 중에는 스님부터 일반인까지 그 층위가 다채롭다. 이 중에는 석이(石伊), 악삼(惡三)과 같이 성씨가 없는 천민들도 포함돼 일부 전문가들은 관음상이 “민간 신앙결사 차원에서 조성됐다”고 추정하기도 했다.



부석사 관음상 논란 경과는?

관음사의 원봉안처가 서산 부석사임이 알려지자, 사찰은 신도들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부석사 금동관음보살 제리봉안위원회’를 구성하고, 법원에 불상 반환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는 곧바로 받아들여져 2015년 7월 소유자 주장이 없던 통일신라 금동여래입상만 일본으로 돌아갔고, 부석사 관음상은 대전 국립문화유산연구소 수장고에 보관됐다.

이후 서산 부석사는 2016년 정부를 상대로 관음상 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2017년 1월 26일 대전지법은 “정부 보유 관음상을 부석사로 인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이 곧바로 항소해 인도 집행 정지 신청을 냈고 대전지법은 검찰의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며 다시 논란이 됐다.

이후 지리한 법적 공방은 7년여 간 이어졌다. 2023년 2월 1일 대전고법 민사1부(박선준 부장판사)는 서산 부석사가 정부를 상대로 낸 관음상 인도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현재 서산 부석사가 서주(고려시대 지명) 부석사와 동일한 권리 주체라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뒤집어진 판결에 서산 부석사 사부대중과 시민단체들은 분노했고 즉각 대법원에 상고했다.

결국 재판은 대법원까지 갔지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3년 10월 26일 2호 법정에서 서산 부석사가 정부를 상대로 낸 관음상 인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2심과 달리 고려 서주 부석사와 현재 서산 부석사가 동일한 권리 주체임은 인정했으나 “일본의 민법에 의해 쓰시마 간논지가 관음상을 소유권 취득시효가 완성돼 부석사의 소유권이 상실된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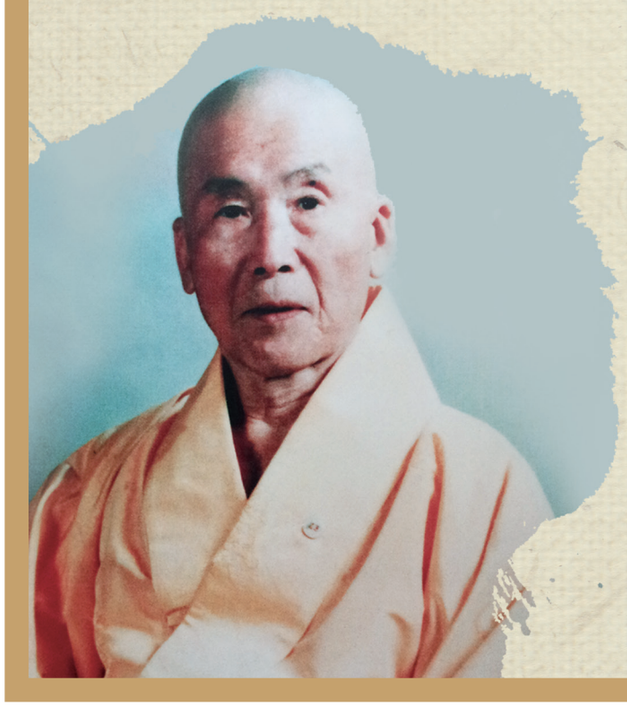
이에 현장에 있던 서산 부석사 주지 원우 스님은 “대법원은 무력·불법적 약탈을 합법화 해줬다. 이것은 야만적 판결이다. 저희는 이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패륜적 판결”이라고 성토하기도 했다.

2024년 서산 부석사는 정부에 관음상을 부석사 봉안 후 100일 친견법회를 열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간논지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했다. 그해 9월 간논지는 조건부 승낙했다.

올해 1월 24일 국립문화유산연구원에 수장돼 있던 서산 부석사 관음상은 647년 만에 원봉안처인 부석사로 이운돼 100일이라는 짧은 환지본처가 이뤄졌다. 신중일 기자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세계초대법왕 일붕 서경보 존자 제29주기 추모다례재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일붕선교종을 창종하시고 세계불교초대법왕을 역임하시면서 세계 곳곳을 종횡무진하시며 오직 불교포교와 세계평화, 민족 평화통일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 평생을 바치신 일붕 서경보 존자의 제29주기 추모다례재를 아래와 같이 총본산 일붕선원에서 봉행하고자 하오니 종도님들께서는 참석하시어 자리를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 시 : 불기2569(2025)년 6월 4일 수요일(음5월9일) 오전 11시
장 소 : 일붕선원 대법당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검정로 6길 76-9 일붕선원
전 화 : (02)991-8175, 8904

세계초대법왕 일붕 서경보 존자 제29주기 추모봉행위원회